

광주시, 동절기 생활안정 종합대책 추진

내년 2월 말까지 결식 우려 아동 급식 등 3개 분야 22개 과제 선정

광주시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시민생활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종합대책은 저소득층 지원과 취약계층 보호강화, 시민생활안정과 시민불편 해소, 재난대비 안전관리 강화 등 3개 분야 22개 과제로 마련했다.

우선 시는 겨울철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취약계층 보호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서비스와 접점을 실시한다.

독거노인과 장애인 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실시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거리노숙인의

보호를 위해 현장대응반을 운영·긴급지원에 나선다.

방학동안 결식 우려 아동 1만 4877명에 대해서는 급식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555곳은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차상위계층 69세대, 사회복지시설 81곳 등에 난방비를 지원하고, 생계·의료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가정 등 2만 941 세대에 연탄, 등유, 에너지비우처 등을 지원한다.

관내 영구임대 아파트 14개 단지 1만 5370세대에 공동전기료 50% 지원과 시설안전점검을 진행

한다.

시민들이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언론기관과 함께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을 전개하고, 공직자들의 복지시설 위문 및 자율봉사활동도 추진한다.

시는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과 시민불편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장철과 다과를 설 명절 전 물 기양정을 위한 물가대체 상황실을 운영하고 민·관 협동으로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현장을 점검한다.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위해 식품제조업 등 299곳을 대상으로 연

말연시 민관합동 특별 위생점검도 실시한다.

수도 동파방지를 위해 수도관 및 계량기의 사전점검과 함께 동파 예방요령 홍보물을 배포하고, 계량기 보호통과 보온재 등 접점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절기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기동처리반과 긴급지원반도 편성 운영한다.

시는 한파, 폭설 등 동절기 재난 대비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급경사지 등 194곳의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자연재난 종합상황 관리 체계를 구축해 기상상황에 따른 단계별 상황관리를 통해 신속하게 재난 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다.

강설예보 시에는 확보한 제설자재 및 장비, 인력을 동원해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공직자와 자율방재단도 이면도로, 횡단보도 등의 눈치우기에 참여한다.

농축산시설의 안전을 위해 대설 대비 하우스 등 시설 정비 및 보강을 추진하고 조류독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기죽전염병에 대비해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설해로 인해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내버스 노선과 차량을 사전점검하고, 적설량에 따른 단계별 상황 대응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유도할 방침이다.

김준영 시 자차행정국장은 "겨울날기가 힘든 저소득·취약계층을 보살피고, 동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만전을 기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2019 빛고을 사랑나눔 김장대전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달 30일 광주 남구 임암동 광주김치타운 다목적체험관에서 열린 '2019 빛고을 사랑나눔 김장대전'에 참석해 최재영 KT&G 전남본부장,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담근 김치를 들어보이고 있다.

전남도,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공모...60억 규모

약용작물산업화센터, 인삼생산유통시설 2개 분야

전남도는 약용작물을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 '2020년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공모분야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약용작물 연구개발 및 종자 보급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원료

와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지원하는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등 2개 분야다.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는 약용작물 연구개발 및 종자 보급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원료

공급자로 생산기반이 구축된 시군을 대상으로 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총 사업비는 60억원(국고 50%, 지방비 50%)이다. 연구시설 및 장비, 생산시설 등을 3년간 연차별로 지원한다.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은 인삼·특용작물을 연간 60톤이

상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대상으로 27일까지 해당 시·군(읍·면)에서 접수한다.

지원 규모는 신규로 생산시설을 현대화할 경우 개소당 20억원, 보완시설은 6억원이다.

홍석봉 전남도 산림원예과장은 "이번 공모사업은 약용작물산업화와 인삼·특용작물 전문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대상자가 빠짐없이 공모에 참여하도록 공모계획을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연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배에 달하는 금이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5분위 240,833원
4분위 125,531원
3분위 79,147원
2분위 48,103원
1분위 26,697원
↑ 1.1倍
↑ 1.7倍
↑ 2.1倍
↑ 2.7倍
↑ 5.3倍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동구, 재능아동 꿈나무 지원사업 장관상 수상

광주 동구가 28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열린 '2019년 국민디자인단 성과공유대회'에서 '동구 재능아동 꿈나무 지원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대회는 지난 1년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수행한 163개 국민디자인과제 중 심사자를 거쳐 최종 11개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다.

동구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지역재능아동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국민대학교와 함께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하고 정책개발에 힘써왔다.

서구, 상무2동 치매안심마을 운영위 발족

광주 서구가 지난달 26일 치매환자가 살아온 곳에서 지속적으로 함께 생활해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상무2동 치매안심마을 운영위 위원회를 발족했다.

치매안심마을이란 치매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더불어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으로 치매환자와 가족 모두가 행복한 치매 친화적 안심공동체'를 실현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이에 서구는 치매안심마을 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 민·관 기관 및 단체 등의 협력과 연계를 통한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코자 운영위원회를 발족했다.

남구 장난감 도서관, 월 1000여명 문턱 넘는다

광주 남구 관내 2곳의 구립 장난감 도서관이 영유아 양육 부모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리면서 가게 장난감 구입비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 놀이터 역할을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남구에 따르면 관내에는 빙림동 빙셋골 장난감 도서관과 양립동 아이시랑 장난감 도서관 등 구립 장난감 도서관 2곳이 운영되고 있다.

아이들이 다양한 장난감을 체험할 수 있다는 입소문이 부모들 사이에서 퍼지면서 현재 이곳 구립 장난감 도서관의 연간 회원 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4년 관내 1호점으로 문을 연 빙셋골 장난감 도서관의 경우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673명이 회원으로 가입, 지난해 회원 가입자 572명을 훌쩍 뛰어 넘어 섰다.

북구, 영유아 응급상황 대비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광주 북구가 보육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북구는 "2일 오후 1시부터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관내 어린이집 교직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은 보육교직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광산구, 겨울철 재난 예방·대응 나서

광주 광산구가 겨울철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대설과 한파, 재난취약시설 안전사고 피해 예방에 나섰다.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한 광산구는, 이 기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13개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해 제설, 적설·취약구조물 안전점검, 폭설 고립 예상지역 점검 등 분야별 대응계획을 짐작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난 상황별 관계부서 협동 대응체계도 유지한다.

한파에 따른 피해예방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는 취약계층 방한용품 지원과 안부전화 특별 관리를 실시한다. 나아가 1일부터 3개월 동안 복지사각지대 위기기구 발굴 일제조사도 병행한다.

임혁택 기자

호남신문 공익 캠페인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입니다"

한 잔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 약속해주세요